아더 핑크 지음 / 정시용 옮김 / 프리스브러리

책을 만난 그 날, 끄적거린 메모는 이랬다. "10년 된 크리스천, 지난 삶은 이해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나도 참 못났다. 먹먹하고 답답하다. '제 안에 계신다는 하나님, 뭐하고 계신가요?'" 그런 내게 저자는 감성적이나 훈계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높이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내 기도를 바꾼 '바른 위로'가 되었다.

위로 하다 : '살아 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한 안내

죽음을 앞두고 위로에 관한 설교를 모아 책을 펴낸 저자는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영원한 유업으로 택하셨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은혜를 풍성히 채울 그릇으로 소유하셨고 주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가신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결정하셨고 그래서 '그 분의 징계는 재판관이 아닌 아버지로서 내리는 자녀 훈육'이다. 고난을 겪을 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되는 일만 허락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복이 되도록' 하신다. '장차 임할 영원한 시대에 우리 안에 충만할 영광을 소망하게 하시며 현재의 고난이 가볍고 순간적임을 깨닫게' 하신다. 그 여정에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황금빛 영혼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기억하시는 분'이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득 채우시는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이시다.

동시에 저자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며, '성도의 삶'으로 안내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부족하다고 한탄하는 것 자체가 부름 받은 존재임을 드러낸다고 격려한다. 인생은 난해한 수수께끼이고 우리는 자신이 가는 길을 조금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한다. 또한 성경에 등장하는 성도들을 예로 들며, 시련 없는 성도는 하나도 없고, 죄에 대한 애통함은 그리스도인의 일상적 경험이며, 거듭난 자의 심령은 주리고 목마른 법이라고 위로한다. 그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성품은 영적인 분별력과 이해력을 낳아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세상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지금 주신 것으로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조언한다. 그런 성도의 삶은 죽음까지도 두려움이나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것이다.

위로 받다 : 함께 길을 걸으며 위로자가 되고 싶은 용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륜과 사역을 설명하며 성도의 삶을 안내해 준 그의 위로는, 자기 중심성의 좁은 틀을 벗어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삶을 위에서 바라보게 한다. '하나님, 고난과 의심을 품고 당신과 함께 이 길을 걷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책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 하겠습니다.' 내게 용기를 준 이 책의 일독을 여러분께도 권한다.

장정열 / 호텔레저 기업 서비스 관리 및 교육 담당 / 올데이 크리스천의 삶을 소망하는 만년청년